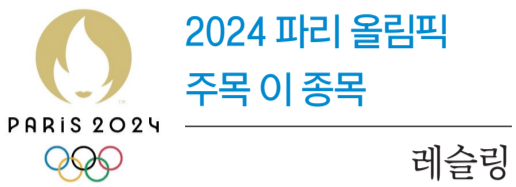


세대교체 더딘 한국 레슬링, 그래도 희망은 있다



레슬링

한국 레슬링은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수모를 겪었다.

당시 레슬링 대표팀은 올림픽 개막을 4개월 앞두고 해외에서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초대형 악재를 겪었고, 그 여파로 올림픽 출전권을 단 2장 획득하는 데 그쳤다.

그러고는 결국 한국 레슬링은 1972년 뮌헨 올림픽 이후 49년 만에 '올림픽 노메달'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도쿄 올림픽은 추락의 시작점에 불과했다. 유망주 발굴과 세대교체에 실패한 한국 레슬링은 세계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났다.

한국은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2개라는 초라한 성적을 내기도 했다.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도 따지 못한 건 1966년 방콕 대회 이후 57년 만이었다.

레슬링 대표팀은 주축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반납하거나 부상 악령에 시달리면서 속절 없이 추락했다.

오랜 기간 한국 레슬링의 간판으로 활약하던 2012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현우는 지난해

49년만의 '도쿄 노메달' 이어 아시아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나 그레코로만형 97kg급 김승준·130kg급 이승찬 두 명만 출전 "한국 레슬링 부활 시키겠다"

12월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고, 2013년과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류한수 역시 파리 올림픽 아시아 쿼터 대회와 세계 쿼터대회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한국 레슬링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던 정한재는 파리 올림픽 예선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체급을 그레코로만형 60kg급에서 67kg급으로 올렸다가 국내 선발전에서 류한수에게 패했기 때문이다.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인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130kg급 간판 김민석도 부상 여파로 국내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했다.

추락을 막지 못한 한국 레슬링은 도쿄 올림픽에 이어 2024 파리 올림픽에도 단 두 명의 미니 대표팀을 파견하게 됐다.

한국은 지난 4월에 열린 파리 올림픽 아시아 쿼터대회에서 남자 그레코로만형 97kg급 김승준(성신양회)과 130kg급 이승찬(강원체육회)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세계 쿼터대회에선 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객관적인 전력상 한국 레슬링의 파리 올림픽 메달 획득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김승준은 세계랭킹 60위, 이승찬은 세계랭킹 22위로 각 체급 16명의 출전 선수 중 하위권에 속한다. 두 선수 모두 메이저 국제대회 입상 경험도 없다.

그러나 레슬링인들은 희망의 끈을 놓는다. 특히 이승찬에게 큰 희망을 걸고 있다.

많은 국제대회에 나가지 않은 만큼 전략, 전술이 노출되지 않았고 최근 페이스가 좋다는 것이 레슬링계의 평가다.

이승찬 역시 "반드시 올림픽 메달 획득에 성공해 위기에 빠진 한국 레슬링을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북한도 파리 올림픽에 레슬링 선수들을 파견한다. 총 5명이다.

남자 그레코로만형 60kg급 리세용과 여자 자유형 50kg급 김선향, 53kg급 최효경, 62kg급 문현경, 68kg급 박솔금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 레슬링 종목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는 선수는 '살아있는 전설' 미하인 로페스(41·쿠바)다.

로페스는 2008년 베이징, 2012 런던(이상 그레코로만형 120kg급), 2016 리우데자네이루, 2020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승찬(왼쪽)과 김승준.

〈대한레슬링협회 제공〉

도쿄(이상 그레코로만형 130kg급) 대회에서 올림픽 4연패를 차지한 인물이다.

로페스는 도쿄 올림픽 이후 은퇴를 선언했다가 5연패에 도전하겠다고 현역 복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승찬이 뛰는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kg급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로페스가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올림픽 역사상 개인종목에서 5연패를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된다.

파리 올림픽 레슬링 종목은 남자 그레코로만형 6개 체급, 남자 자유형 6개 체급과 여자 자유형 6개 체급을 합쳐 총 18개 금메달이 걸려있으며 현지시간으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에펠탑 인근의 아레나 샹드마르스에서 열린다.

이승찬과 로페스가 출전하는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kg급은 8월 5일과 6일, 김승준이 나서는 97kg급은 8월 6일과 7일에 펼쳐진다.

/연합뉴스

“계영 800m 올림픽 메달, 꿈 이뤄질 것”

황선우·김우민 등 수영 대표팀 출국 “이 시대 살고 있는 게 영광스러워”

황선우(21·강원도청)는 “솔직히 나도 한국 수영이 단체전에서 메달을 노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상상하지 못했던 대업을 이룬 날이 다가온다.

황선우는 16일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을 위해 한국 수영 경연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남자 계영 800m 올림픽 메달 획득은 이제 꿈에 머물지 않는다. 가능성이 열렸다. 이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김우민(22·강원도청)도 “우리 계영 멤버 6명 모두 훈련을 잘 소화했다. 현지 적응만 잘 마치면, 계영에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 수영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 3개를 기대한다.

세계선수권 3회 연속 메달(금, 은, 동메달 1개씩)을 따낸 황선우가 남자 자유형 200m, 2024년 도하 세계선수권 챔피언 김우민이 자유형 400m에서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힌다.

여기에 이호준(제주시청), 이유연(고양시청)과 양재훈(강원도청), 김영현(안양시청)이 가세할 남자 계영 800m에서도 메달을 노리고 있다.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은 지난 2월 도하에서 열린 2024 세계선수권에서 양재훈, 김우민, 이호준, 황선우 순으로 역영해 7분01초94로 2위에 올랐다. 1위 중국(7분01초84)과의 격차는 불과 0.1초였다.

한국 수영의 르네상스를 연 황금세대들이 세계선수권 단체전 사상 첫 메달을 은빛으로 장식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수영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7분 01초73의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하며 한국 수영 단체전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했다.

한국 수영 최초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도 계영 종목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자유형 선수 두 명(황선우, 김우민)을 보유한 ‘황금세대’는 올림픽 메달까지 노리고 있다.

황선우는 “개인 기록을 합산해보면 호주, 중국과 3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쿄 올림픽 이후 우리 계영 대표팀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 결과를 보여드릴 때가 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김우민도 “우리 멤버들의 기록과 컨디션이 정말 좋다. 계영 800m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한국 대표팀은 자유형 200m와 100m에 출전하는 황선우를 보호하고자, 남자 계영 800m 예선에는 황선우를 제외할 생각이다.

황선우는 “예선과 결승 멤버를 달리해서 뛰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선우는 자유형 100m 준결승(한국시간 7월 31일 오전 3시 30분)과 계영 800m 결승(7월 31일 오전 4시 59분)을 1시간 30분 간격으로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그는 “자유형 100m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당일 현장에서 뒀기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첫 올림픽서 ‘금빛 과녁’ 조준

순천시청 남수현, 개인·단체 기대

올림픽 사상 첫 단체전 10연패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16일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순천시청 소속의 남수현(사진)은 임시현(한국체대), 전준영(인천시청)과 함께 첫 올림픽 무대에서 ‘금빛 과녁 조준’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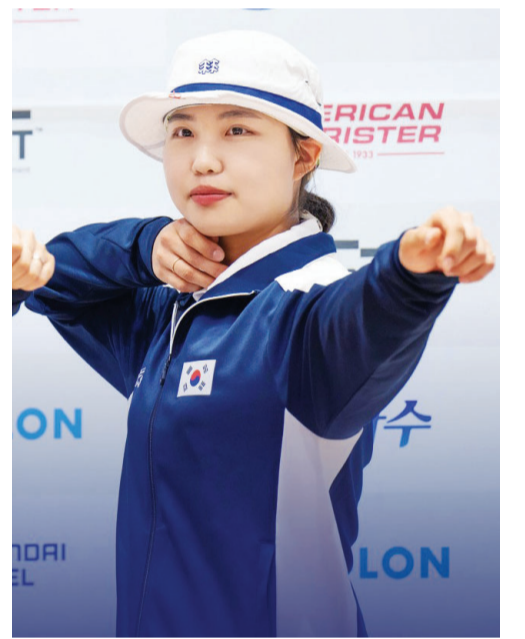
이들을 비롯해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 등 선수 6명, 대표팀 홍승진 감독을 비롯한 지도자 5명 그리고 의무·지원 스태프까지 총 13명으로 구성된 한국 양궁 대표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리로 출국했다.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수목화 느낌의 ‘쪽색’ 시상용 단복을 입은 남수현은 담담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올해 순천시청에 입단한 2005년생 남수현은 양궁 역사상 최초로 국가대표 상비군이 된 첫 해에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순천시청 임동일 감독은 남수현에 대해 “양궁을 너무 좋아하고 양궁에 푹 빠져있는 선수”라고 전했다.

임 감독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국가대표가 되고 또 올림픽까지 출전하는 게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에 처음 났을 때 발전 가능성을 봤지만 이렇게 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이 답지 않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긴장감도 표정에 잘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며 “자기 실력대로만 쏘으면 좋겠다. 실력대로만 한다면 단체전도 우승할 것이고 개인전에서도 입상을 기



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수현은 지난 4·6월에 거쳐 진행된 ‘파리올림픽 전초전’ 2024 현대 양궁 월드컵에서 임시현, 전준영과 1·2차 대회 단체전 은메달, 3차 대회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하며 파리올림픽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이번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는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 5개 종목이 치러진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 개인전을 제외하고 금메달 4개를 휩쓸었던 양궁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최소 3개의 금메달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선발 특명’ KIA 김도현 “즐거겠다”

150km 강속구에 커브·슬라이더·체인지업 구사...이범호 감독 “고정으로 채우며 1위 지킬 것”

당황, 불안, 행복, 책임감 등 다양한 감정을 안고 KIA 타이거즈 김도현(사진)이 변신을 준비한다.

전반기 선발진의 부상으로 고전했던 KIA는 다시 또 ‘선발 속제’를 안았다.

지난 13일 SSG와의 홈경기에서 허리 통증으로 2회를 끝으로 물러났던 좌완 윤영철이 병원 검진 결과 척추 피로 골절 진단을 받았다. 3주 뒤 재검진이 진행되는 만큼 윤영철의 공백은 생각보다 길어지게 됐다.

KIA는 고심 끝에 ‘김도현 선발’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범호 감독은 16일 “김도현을 선발로 내정하고 투구수 올려가면서 할 생각이다. 1명을 정하고 개수를 올려가면서 시즌 마칠 때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김도현은 트레이드 전에 선발 경험이 있다. 내년 선발로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빨리 준비시켜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KIA는 뜨거운 화력으로 1위 질주를 하고 있지만 마운드가 버티며, 뒷심 있는 타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선발 매치업에서 밀리면서 패배가 쌓였다. 임시 선발이 아닌 고정 선발로 자리를 채우고 마운드 싸움을 하면서 1위를 지키겠다는 게 이범호 감독의 계산이다.

지난 2월 군복무를 마치고 온 김도현에게 올 시즌은 도전의 시즌이다. 150km가 넘는 강속구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을 구사하는 그는 볼펜으로 새 팀에서 첫 출발을 했다. 그리고 시즌 중반에는 선발이라는 목직한 역할을 맡게 됐다.

김도현은 “기회가 너무 빨리 와서 당황하기는 했지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회를 빨리 주셨으니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발을 볼펜보다는 더 많이 해서 익숙하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선발 소식에 당황했던 김도현의 다음 감정은 책임감이었다.

김도현은 “감독님, 코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임시가 아니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장)현식이 형이 많이 던지기도 했고, 불펜도 그렇고 선발도 다들 고생하고 있다. 어떻게든 팀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책임감 속에 등판을 준비하는 김도현에게는 ‘불안감’도 있지만 “즐거겠다”는 마음이다.

김도현은 “좋은 기회이면서도 시즌 중반에 선

발하는 만큼 잘 이겨내야 될 것 같다. 불안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이다. 너무 잘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마운드에 올라가서 즐겁게 할 생각이다”며 “행복한 일을 하고 있으니 행복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행복한 마운드’를 위해 김도현은 1구 1구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김도현은 “유리한 카운트에서 안타를 맞은 경우가 많다. 충분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했다. 아는데 안 되니까 내 자신한테 너무 답답했다”며 “롯데전 이후에 그런 게 많이 와 닿았다. 그전에는 그냥 마운드에 올라가면 행복했다. 최대한 더 집중해서 던지고 한다”고 말했다.

또 “선발로 긴 이닝을 하다보면 조금씩 이런 부분이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발하면 쉽게 쉽게 넘어갈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잘 풀어야 할지 많이 연구하면서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팀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